

		<b>보 도 자 료</b>		 
		배포 일시	2021 05. 11.(화) 총 3매(본문 1, 사진 2)	
담당 부서	지도교섭과	담 당 자	·과장 임태호, 서기관 김용태, 주무관 태종완 ☎ (044) 200-5569, 5564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담 당 자	·과장 김형덕, 지도계장 정윤혁, 주무관 문수진 ☎ (051) 410-1005, 1030, 1048	
보 도 일 시		<b>배포 즉시 보도 가능</b>		

##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호 사고해역 급파, 예인 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포항 호미곶 동방 약 1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통발 어선 A호(부산선적, 79톤, 승선원 10명)의 구조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예인 중이라고 11일(화) 밝혔다.

A호는 5월 11일(화) 08:00경 포항 호미곶 동방 약 190km 해상에서 조업 중 스크루에 미상의 물체가 감겨 어선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구조요청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해역은 한·일 EEZ 경계선과 인접한 해상으로, A호는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일본 EEZ측으로 표류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무궁화1호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여 09:20경 선원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A호를 구조하였으며, 11일(화) 21시경 포항 인근 해상까지 안전하게 예인하여 선주 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 중인 어선에서 폐어구, 부유물에 의한 스크루 어망감김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당직근무자의 철저한 전방주의와 출어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